

## 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6. 1. 22.(목) 07:00 ~ 22:00
- 상담건수: 997건

## II. 주요의견 내용

### ○ 방송 호평(3명)

-프로그램명 : 「생로병사의 비밀」

-방송일시 : 2026. 1. 21.(수) 1TV (22:00-22:50)

해당 프로그램은 워낙 유명한 방송이라 매회 유익하게 시청한다. 본인과 관련 있는 질병이 방송되는 회차는 더 와닿는 부분이 있다. 건강에 대한 상식이 많아져 도움이 된다.

### ○ 진행자 제언(1명)

-프로그램명 : 「전격시사」

-방송일시 : 2026. 1. 22.(목) 1R (07:05-08:57)

여성 진행자가 편파적으로 진행한다. 공정해야 할 KBS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하고 있다. 본인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신료가 피 같은 돈이다.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.

## 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 - 7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#### IV. 일일 상담내용

##### 1. 상담실적 : 총 997건

###### 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<sup>1)</sup>	계
392	37	-	-	568	997

###### 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528	387	6	-	1	75	997

###### 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110	887	-	997

###### 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885	-	45	67	997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<b>【편 성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우리 집 금송아지」 - 후속 방송 요청</li> <li>○ 「한 번쯤 멈출 수밖에」 - 후속 방송 요청</li> </ul> <p><b>【시사·교양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생로병사의 비밀」 - 방송 호평</li> </ul> <p><b>【연예·오락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슈퍼맨이 돌아왔다」 - 방송 호평</li> <li>○ 「개그 콘서트」 - 방송(소재) 추천</li> </ul> <p><b>【라디오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전격시사」 - 진행자 제언</li> <li>○ 「주현미의 러브레터」 - 방송 호평</li> </ul>	<p><b>【방 송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6시 내고향」 - ‘메주, 청국장’ 연락처 문의 102건</li> <li>○ 「2TV 생생정보」 - ‘집수리’ 연락처 문의 37건</li> <li>○ 「아침마당」 - ‘출연자’ 연락처 문의 22건</li> <li>○ 「개그 콘서트」 - ‘방청’ 문의 13건</li> <li>○ 「가요무대」 - ‘방청’ 문의 12건</li> </ul> <p><b>【경 영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21건</li> <li>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19건</li> <li>○ 「수신료」 문의 3건</li> <li>○ 「견학」 문의 1건</li> <li>○ 「사업 및 행사」 문의 1건</li> </ul> <p><b>【기 타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진 문의사항 포함 67건</li> </ul>

1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



의견	세부내용
방송 호평	<p>○ 「주현미의 러브레터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R (월-일) (09:00-11:00)</li> <li>- 본인이 70대인데 옛날 노래를 많이 선곡해 주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. 주현미 씨의 진행 방식도 마음에 들고, 방송 내용도 좋다. 얼마 전에는 난생처음으로 사연을 보내고 선물이 당첨되어 너무 좋았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조**</p>